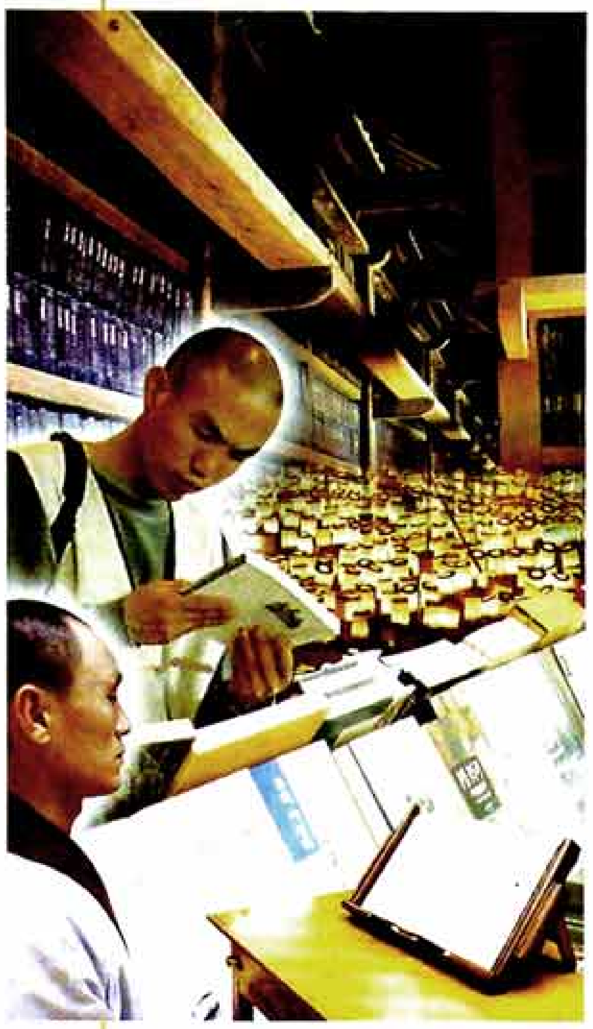
책으로 만나는 부처님

'깨달음의 뗏목' 경전을 읽자



불교 경전 간행이 우리나라 출판의 전부인 시절이 있었다. 한글창제 이후 최초로 간행된 〈석보상절〉〈월인석보〉〈묘법연화경〉〈능엄경〉 등 모두가 불교 경전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간경도감을 설치 국가 차원에서 언해본 경전들을 잇따라 펴냈다. 흔히 불교출판의 역사가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라고 말하는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개념의 출판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경전이 대중서의 형태로 출간된 시기는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문을 연, 지난 80년대 이후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불교전문출판사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경전 출판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경전류는 크게 주석 · 해설 · 연구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모든 불서는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불교 서적이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전 해설서를 살펴본다. 불서총판 운주사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전 해설서는 약 620여종.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간된 경전은 〈금강경〉이다. 그리고 〈법구경〉〈천수경〉〈화엄경〉〈법화경〉〈유마경〉 등도 만만치 않게 나와 있다. 이처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은 10여 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의 경전들은 승가대학이나 몇몇 학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출간됐다. 물론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완간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또한 이러한 경전류를 내놓은 출판사는 대부분 불교전문출판사들이다. 민족사를 비롯해 불교시대사, 불광, 운주사, 보련각 등이 대표격. 민족사는 지난 94년부터 '불교경전시리즈'를 기획, 지금까지 22권의 경전 해설서를 비롯해 관련서들을 주요출판분야로 하고

경전 해설서 6백 20종
금강경 · 법구경 등 인기

민족사 펴낸 '작은 경전'
불서읽기 대중화 앞장

있다. 특히 민족사는 최근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경전 시리즈를 내놓아 경전 읽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불교시대사는 '읽기 쉬운 경전 시리즈' 10권을, 불광, 운주사, 불일, 보련각 등 불교전문출판사들도 여러 종의 경전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일반출판사들의 불교 경전에 대한 관심도 높게 일고 있다. 그 대표적 출판사는 시공사. 지난 97년부터 '시공불교경전 시리즈'를 기획, 매년 불교경전을 내놓고 있다. 곧 출간될 〈해심밀경〉〈승만경〉을 비롯해 지금까지 7종 9권을 출간했다. 그리고 12월경 12권의 〈화엄경〉도 출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집문당, 현암사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불교경전을 출간하고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출간된 경전은 20~30종에 편중돼 있다.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이 정도의 경전이 대중서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불교출판인들의 분석이다.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독자들이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는 많지만 경전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하더라' 식의 지식밖에 갖출 수 없다"며 "반드시 원전을 읽어 확고한 불교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윤 사장은 "범종단 차원에서 불교경전연구소를 설립해 전문가들이 경전 해설서를 펴낸다면 기존 경전류의 가장 큰 단점이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불교경전읽기 대중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불교전문출판사들이 척박한 출판환경에서 일궈낸 불교경전출판의 성과는 값진 열매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 입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이라는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궁극적으로 책은 언젠가는 버려야할 '뗏목'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 언덕에 이를 때까지는 공들여 읽어야 할 깨달음의 방편임도 부인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 읽기를 올 부처님 오신날 원력으로 세워보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아기부처 위한 동화집 3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이 땅에 부처님의 오신 의미를 알게 하는 동화집 3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책뱅크)와 〈부처님 이야기〉(아래아픽쳐북스) 그리고 〈성철스님과 모과동자〉(현대문학어린이)가 바로 그것.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는 유아와 아동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 동화집이다. 은은한 색상과 부드러운 선으로 구성된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피는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7천원.

〈부처님 이야기〉는 동화작자 이상고 씨가 글을 쓰고, 화려한 색채로 신비로운 그림 세계를 펼치는 화가 노성빈 씨가 그림을 그린 창작 동화다. 이 책은 크게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전래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 부분은 부처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통해 부처님 말씀에 담긴 참다운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0편의 불교 전래 동화는 어린이들이 부모에 대한 효와 인간애, 생명의 소중함, 올바름의 가치 등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한다. 값 9천5백원.

'이땅에 오신…' 가족용 그림동화집
'부처님 이야기' 전래동화 10편 눈길
'성철스님과…' 성철 스님 일화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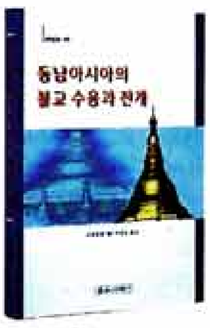
작가 정찬주 씨가 성철스님과 관계된 일화들을 동화로 엮은 〈성철스님과 모과동자〉는 성철스님이 울퉁불퉁한 머리 때문에 '모과동자'라는 별명을 얻은 여덟 살짜리 동자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모과동자는 해인사에 살고 있다. 그는 나무꾼 김 노인이 암자 뒤 숲 속에 쓸모 없는 나무만 골라 장작더미를 쌓는 이유가 궁금했다. 성철스님은 모과동자에게 그 장작더미가 자기가 죽었을 때 몸을 태울 나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뒤부터 성철스님은 모과 동자를 앉혀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세계불교로 본 한국불교 자화상

'동남 아시아의…'

박경준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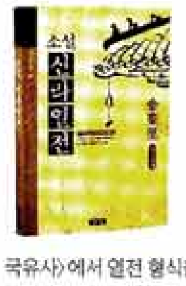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의 불교수용과 전개.' 제목만 보아도 책의 내용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책이다. '1억인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어떻게 자리 매김되어 있을까'를 확인하려 한 일본학자의 기획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지금의 동남아시아 불교는 크게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상좌(부)불교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대승불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이 책은 상좌불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현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은이는 〈상좌부 불교의 정치사회학〉〈타이 불교 입문〉 등을 내놓은 이시이 요네오(일본 상지대학) 교수를 비롯해 일본학자 7명. 이들의 논문을 수록한 이 책은,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상좌불교의 개설(상좌불교의 전파와 현황)'을 시작으로 '고유의 신앙과 불교', '교단과 종교생활', '불교의례의 민족지', '미얀마의 불교문학', '불교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등 동남아시아의 현대불교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남아시의 불교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 현황을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 불교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신라인,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라열전' 김동리 지음



〈신라 열전〉(문흥술 · 박덕규 엮음)은 작가 김동리(1913~1995) 씨가 만년에 쓴 역사소설. 이 책에는 '회소곡'을 비롯해 '원왕생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16편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최치원' '장보고' 두 편의 무대만 당나라일 뿐 모두 신라를 배경으로 한 신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펼쳐진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신라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비롯해 그들의 이상 그리고 죽음의 현장을 찾아보려는 의도에 따라 창작된 '신라혼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각 편의 주인공들은 신라초기로부터 신라말기에 걸쳐 있다. 그 신분 또한 왕을 비롯해 스님, 귀족, 화자, 악사, 문 · 무관, 화랑, 평민 등 다채롭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대개 설화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축으로 호국충정이나 불교적 정신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열전 형식을 빌려 몇 줄의 기록으로 남아 있던 천년 전의 신라인들이 김동리 씨의 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점이 소설이상의 감동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작품의 앞뒤에는 소설가 박덕규 씨와 문학평론가 문흥술 씨의 작품해설과 신라 왕실의 계보를 따로 싣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	대 성	탐 구 사
4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다스툴 [illegible]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음
6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 경 각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봄 여름 가을 겨울	법 정	이 레
9	석가모니 슬기동화	최신원 이규항	은 하 수
10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정 휴	민 족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믿을 수 있는 책 믿을 수 있는 회사 김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 TEL 745-4823 FAX 745-4826

진리의 빛 행복의 샘 김영사 불교총서

인기독점 속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는 불교서의 금자탑

불타의 세계

불교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최근까지의 불교학 및 인도철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계 초유의 대작. 세계적인 불교학계 거장들의 6년에 걸친 현지 고증 및 집필, 수백 점의 천연사진과 자료, 2년간의 우리말 작업 끝에 나온 화제작. 삶의 고통을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부처의 삶과 여정. 그가 가르친 삶의 방식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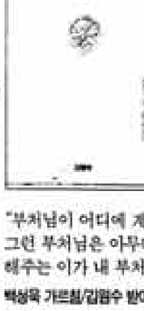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김지견 옮김/4 · 6배판 양장본/544쪽/값35,000원

행복한 마음

생각만으로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음 하나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뉘는 것을.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다스림의 저 밖에 있고 삶은 때로 질곡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171가지 이야기들이 빛나는 잎새로 모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당신의 마음을 쉬어보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것 하나를 위해 이 책을 바칩니다.

출간 이후 16년간 49쇄를 거듭 찍은 숨은 베스트셀러.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의 바로 그 책.

김정섭 지음/개정증보판/양장본/530쪽/값9,9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지 말라.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나를 밝게 해주는 이가 내 부처님일 뿐이다."

백성욱 가르침/김원수 받아 엮음/양장본/228쪽/값6,900원

禪 어록 시리즈 — 선불교 거장들의 생생한 지혜와 행적, 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세계적인 명저들

육조단경 — 나카가와 다카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15쪽 값 7,000원
달마어록 — 야나기다 세이잔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00쪽 값 8,900원
초기선종사 1, 2 — 야나기다 세이잔 지음/양기봉 옮김/양장본 1권 464쪽 2권 358쪽 1권 값 14,900원 2권 값 13,900원
방거사어록 — 이리야 요시타카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08쪽 값 8,500원
대혜서 — 아라키 겐고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400쪽 값14,900원

불교학술서 — 국내외 불교학계에서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공 석학들의 주옥같은 명저들

대승불교개설 — 히라가와 아키라 외 편저/정승석 옮김 양장본/408쪽 값 12,000원
불교요설 — 와타나베 쇼코 지음/석오진 옮김 개정판 양장본/184쪽 값9,900원
바웃드하 불교 —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혜원 옮김 신국판/368쪽 값 7,900원
인도고대사 — 릴라 샤르마 지음/이광수 옮김 양장본/392쪽 값8,900원
종교학 — 기시모토 히데오 지음/박인재 옮김 양장본/192쪽 값7,900원
불교입문 — 다지치기 지쿠도 주해/신법인 옮김 개정판 양장본/290쪽 값11,000원